

홍상수 감독 '하하하'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상'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가 제63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대상인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수상했다.

주목할 만한 시선상은 칸영화제에서 본선 경쟁부문과는 별도의 경쟁부문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이다. 지금까지 칸영화제에 6번 초청돼 국내 영화감독 중 최다 초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홍 감독이 수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984년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가 처음 이 부문에 진출한 이래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주목할 만한 시선상을 수상했다.

홍 감독은 1998년 '강원도의 힘'을 시작으로 '오! 수정'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극장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등으로 잇따라 칸영화제에 진출해왔다.

홍 감독은 "함께 영화를 만든 친구들에게 이 상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두 19편이 초청된 경쟁부문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창동 감독의 '시'와 임상수 감독의 '하녀' 등 2편이 진출해 있다.



/연합뉴스

퇴행성 관절염 발병원인 첫 규명

광주과기원 전장수 교수팀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 발병원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밝혀졌다.

23일 광주과기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광주과기원 생명과학부 전장수 교수팀은 히프루알파(HIF-2α) 유전자와 연골세포에서 연골퇴행을 유발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해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 의학 분야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IF 27.553)' 최신호(5월24일자)에 주요 논문으로 게재된다.

연구진은 HIF-2α라는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가 사람이나 동물의 퇴행연골에서 지나치게 발현되면 연골퇴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연골기질 분해효소인 매트릭스(MMP)와 아담티에스(ADAMTS), 염증 유발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골조직을 퇴행시켜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HIF-2α(Hypoxia-inducible factor-2α)는 저산소증(hypoxia)에 의해 단백질 양이 증가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 알려진 기능과는 별개로 퇴행성 관절염에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대학 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조선대 치과대학(원)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수관)은 최근 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201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학생 30명에게 4150만원의 장학금과 무이자 대여 학자금을 전달했다.

〈조선대 제공〉

유엔난민기구 창설 60주년 맞아 광주 온 한국대표부 앤 메리 캠벨 대표

“한국인들 다문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

“난민들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단지 박해에서 벗어나 고향을 떠나온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5·18 민주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시민들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합니다.”

지난 22일 광주국제교류센터 초청으로 광주시 동구 급남로 1가 광주국제교류센터 강의실에서 ‘난민들이 처한 곤경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커뮤니티의 노력’을 주제로 강연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앤 메리 캠벨(여·57·Anne Mary Campbell·아일랜드) 대표는 전 세계 난민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난민법 신설 인권 힘써야”

세계난민의 날 10주년과 유엔난민기구(UNHCR) 창설 6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앤 메리 캠벨 대표는 “60년 전 6·25 전쟁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폭력과 박해로 인한 실향과 강제 이주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런 아픔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캠벨 대표는 한국의 난민 보호 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난민법을 신설해 인권 분야에 더욱 신경쓰고 ▲난민지원신청자들의 신청 초기에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이들을 교육시켜야하며 ▲난민지원 획득 이전에도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광장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캠벨 대표는 가장 중요한 일로 한국인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 문제를 꼽았다. 한 민족으로 형성된 한국은 민족주의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난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고통받아 한국에 왔지만 또다시 차별을 받게 된다면 큰 상처가 될 것이라며 다문화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광주를 처음 방문한 캠벨 대표는 5·18 민주항쟁에 대해 “30년 전에도 시민들이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쟁을 통해 민주주

의를 현실화했다는 것이 인상 깊다”고 전했다.

또 강연할 때마다 탈북자에 대한 질문을 받는 다며, 탈북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난민’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서 난민 인정 177명

올해 3월 현재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177명으로 난민지원신청자는 2500여명이 고, 난민 인정자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아브라함(38·세레명)이 유일하다.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3441만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 산하기구다. 2차세계대전 종식 이후 발생한 100만 명 이상의 유럽 난민들을 돕기 위해 유엔총회 결정에 따라 1951년 1월 창설된 이래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난민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박광순·박석무·故 김남주 ‘2010 용봉인 영예대상’

전남대 총동창회 선정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상준)는 ‘2010 용봉인 영예대상’에 박광순 전남대 명예교수, 박석무 한국고전번역원장, 고(故) 김남주 시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총동창회는 “4·19 50주년과 5·18 30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박석무 원장과 고인인 김남주 시인, 전남대 출신 첫 학술원 회원인 박광순 명예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해 선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수상자인 박광순 명예교수는 교무처장·학생처장·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 등을 거치면서 모교발전과 후학 양성에 헌신했고, 현재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4·19 세대인 박석무 원장은 전남대 6·3시위, 3선개헌 반대 시위,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옥고를 치렀으며, 국회의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 고전번역원 원장을 맡는 등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했다.



박광순 명예교수

박석무 번역원장

故 김남주 시인

고인인 김남주 시인은 3선 개헌과 유신 반대 운동, 1980년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으며 ‘조국은 하나다’ 등 문학운동을 통해 반독재 저항운동, 민주화에 이바지하다가 1994년 타계했다.

용봉인 영예대상은 전남대 출신으로 국가와 지역사발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주어진다.

한편 상식은 오는 6월8일 오전 10시 전남대 용봉을 개교기념식에서 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SK, 한센인 2세에 장학금 5000만원

전남공동모금회는 최근 소록도 자원봉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SK 행복날개’ 기금 전달식을 갖고 한센인 2세 자녀인 고교생 5명과 대학생 18명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영수 전남공동모금회장, 신현철 SK 부회장, 박형철 소록도 병원장, 이재우 (사)참길복지 대표와 자원봉사자, 한센인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SK는 편견과 소외로 인해 학업과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인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 전남공동모금회에 기금을 전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초등학교 교장이 사진 개인전 연다

광주 송학초교 장석권 교장

교직생활 30여년동안 사진작가 활동을 해온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퇴임을 앞두고 ‘찰나의 흔적’이란 첫 개인전을 연다. 주인공은 광주시 서구 송학초교 장석권(62) 교장.

장 교장은 25~29일까지 광주학생육문회화관 제 1전시관에서 그동안 앵글에 담았던 수천여점의 사진 가운데 140여점을 선별·전시한다.

그의 사진에는 금강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산하와 시골장터, 학교현장의 동심까지 모두 담겨있다. 특히 그의 사진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실적 현상만이 아닌 시각, 청각, 감각적 요소가 정지된 화면 속에 모두 녹아있는 종합적 심상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인전 타이틀도 ‘찰나의 흔적(痕迹)’이다.

장 교장은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동아국제사진살롱 등 전국 공모전에서 수십 차례 수상할 정도로 지역 사진계에선 꽤 이름이 알려진 중견작가다. 장 교장은 “사진은 순간을 영원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매력과 찍는 순간 생각을 때리는 경쾌한 셔터의 연속적인 짜릿함과 그 소리가 좋아 30여년을 보내고 있다”면서 “오는 8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준비한 전시회에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범수-이윤진 결혼

배우 이범수(41)가 14살 연하인 국제회의의 통역사 이윤진(27)씨와 지난 22일 오후 5시 서울 광장동 세라타워컬러 에 스톤하우스에서 웨딩마치를 올렸다.

톱스타 이범수가 사회를 맡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혼식은 김중환 전 합창의장이 주례를 섰으며 축가는 가수 한희와 휘성, SG워너비가 불렀다.



신부 이윤진씨는 춘천 MBC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시작, OBS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현재는 통역사 겸 영어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급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신현직·김지영씨 장남 성철군 조정래(광주교통경제인단체협의회장)·이현주씨 장녀 아리양=피로연 28일(금)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결혼식 6월12일(토) 오후 6시30분 서울 논현동 빌라드베일리.

▲김 원(광주보훈병원 진료부장)·윤해경씨 장남 지하근 김병식·이들씨씨 장녀 진희양=29일(토)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다이아몬드홀)

동창·동문회

▲손솔초등학교 39기(회장 임준호) 동창회=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재식당. 017-601-5866 (총무박종성)

▲조대부중 23기(아)=27일(목) 오후 7시 증심사 중머리재식당 062-

225-8252(구성재)

알림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석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 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모집

▲성모사랑 노인 방문요양 센터 국비지원 가정방문 노인도우미 이용자모집=혼자선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집에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 제공. 062-385-3678.

▲광주시 동구 전문봉사단 육성 교육생 모집=26일(수)~6월3일(목)까지 모집. 'POP에벤글씨·풍선아트' 각 분야 15명씩, 전문기술 습득 후 봉사활동 가능한 시민 선착순 모집. 062-228-1365.

▲엔지임 코리아 주식회사 관리자 모집=화장품 동종업체 경력자 우대. 062-524-0388.

▲전남담양지역 재활센터 재활근

로 참여자 모집=담양거주자이면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근무, 식품유통, 도자기, 집수리 등. 061-383-9909.

▲광주 시사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험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거동 불편한 어르신 모집=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한 분을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목욕·물리치료 등 제공, 참·더부러 재가노인복지센터(062-266-6321~2)

▲황새축구클럽=축구에 관심있는 신분 누구나 환영 회원 수시모집(두암동 거주자대 환영) 010-8216-8585.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출신 환영. 010-3608-1060.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평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자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입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에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0-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

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부음

▲손인균씨 별세 명곡·종표·선미·은아씨 부친상=발인 2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김영규씨 별세 김홍석·성렬·은정씨 부친상=발인 24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마음까지 편안함- 금호장례식장
☎ 227-4000

故 임재철 (남·85세)
주/부: 임규환/이소미
규택/차영미

호	출일	101호
발	인	05월 24일
장	지	영락공원

故 조덕남 (남·85세)
주/부: 이영길/이재순/이호준/정복순
이영길/정복순/이호준/정복순

호	출일	201호
발	인	05월 26일
장	지	대안산성

상가인사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주·차창·정갑환·출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

가입문의 1688-3740

학대종합상조 전문업체 노수현